

# NEAR News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는 NEAR | NEAR Leading the Era of Northeast Asia  
2012. 11-12

Vol. 48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2013. 8. 31 ~ 9. 22)

## 이달의 동정

NEAR 활동 | 사무국 소식 | 회원자치단체 동정

## 기획취재

러시아 알타이 변경주 - 건강과 여행, 휴식과 스포츠! 알타이 변경주에서

## NEAR 회원탐방

대한민국 경상북도 / 몽골 돈드고비아이막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NEAR News

「NEAR News」는 회원단체 서로간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NEAR의 공식메신저로 창간되었습니다. NEAR의 활동상황, 회원 단체 동정, 관련 국제 동향, 각종 기고, 공지사항 등의 주요내용을 담아 정기적으로 발간, 회원단체 및 관련기관에 무료 배포되며 NEAR홈페이지에도 게시됩니다. NEAR News는 회원단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이며, NEAR와 동북아시아지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NEAR News에 수록하고 싶은 좋은 원고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NEAR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 Vol. 48



사막의 겨울풍경 - 몽골 도르노고비아야막



※ 지난 호 표지사진 이름 정정

도르노고비아이막 델게르항가이 산(del gerkhantai mountain)  
을 돈드고비아이막 델게르항가이산으로 정정합니다.

##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은

'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 경주에서 모여 창설한 국제기구입니다.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연합헌장을 채택하고 경제통상, 교육문화교류, 환경, 방재, 변경협력, 과학기술, 관광, 해양어업, 광물자원개발·조정, 에너지·기후변화, 여성·아동, 생명·의료산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몽골의 참여, 신규 자치단체의 회원가입으로 현재 6개국 71개 광역자치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의 대표적인 지방외교협력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NEAR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에 위치하고 연합의 설립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연합총회를 거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 NEAR 활동

## 제2회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 개최

러시아 이르쿠츠크시에서 제2회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가 11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4개국 14개 단체 총 44명이 참석하여 변경협력을 위한 정보공유와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번 분과위원회에서는 자바이칼 정부와 중국 내 몽골 간의 국경으로 흐르는 강 수질문제 회담, 이르쿠츠크주와 하바롭스크 변경주의 NEAR회원국간의 변경협력현황, 알타이지역의 국제조정위원회<우리 공동의 집-알타이> 정보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또한 변경지역 지방정부에 상호무역, 지역홍보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활동 강화를 건의 하자는 제안, 러시아-몽골-중국의 국경검문소 상호협약의 및 24시간 근무 체제 방안 논의, 몽골-러시아 국경지역인 <알탄볼락-카흐타>의 국제자유무역지구 설립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 회의 개최 결과

- 러시아와 주변국 지방정부에 상호무역, 지역홍보 프레젠테이션, 박람회 활동 강화 건의
- 공동의 프로젝트 제안 : 러시아-몽골 국경검문소, 러시아-중국 국경검문소의 상호협약의 및 24시간 근무 체제 방안 논의
- NEAR의 협력관계 지속을 위해 국경위반 행위 단속 및 범죄와의 전쟁업무추진
- NEAR의 회원단체 범위 내에서 <알탄볼락-카흐타> 국제자유무역지구로 만드는 방안 마련
- 중국, 몽골 등 인접국가 지역의 러시아 육류수입쿼터제 할당에 대한 의견 지방정부에 건의
- 협력활성화와 무역경제관계 강화를 위해 대외경제활동을 하는 참가자의 정보 교환의 공통기구 설립, 투자프로젝트 정보게제, 대외 무역활동정보 교환, 법률제안, 국제회의의 정보교환을 위한 공통의 홈페이지 마련 (NEAR 홈페이지 활용도 가능)
- 자연보호협력을 위한 공동의 작업국경지역의 수질보호를 공동의 노력
- NEAR의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국제협회-시베리아협정" 활동들이 "국제조정위원회-우리 공동의 집-알타이"의 경험 공유



제2회 NEAR 변경협력 분과위원회

# 사무국 소식

## 경상북도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NEAR사무국 방문 격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일행이 11월 15일 NEAR사무국을 방문하였다. 박진현 기획 경제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전문위원 1인)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김재효 사무총장으로부터 주요업무 및 성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근무환경 등을 둘러보고 외국파견직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이날 특별히 경상북도의회 송필갑 의장이 참석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원들과 NEAR 사무국직원들을 격려하였다.



## 제10회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 참석

김재효 사무총장은 지난 11월 16일 예천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0회 한·중 국제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동북아시아자치단체 연합의 역할과 지역간 연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 한·중·일 공무원 협력 워크숍 참석

12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호텔에서 열린 “한·중·일 공무원 협력 워크숍”에 사무국 구해일 국제협력과장 외 3명이 참석하여 한·중·일 3국의 지방차원 발전방안과 공무원간 인적교류증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리고 구해일 국제협력과장이 “동북아시아 지방 자치단체 간 협력 현황”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였다.



### ■ 주요일정

일자	주요 일정	장소
2012. 12. 7 (금) 14:00~18:00	주요기관 방문	외교통상부, 3국 협력 사무국
2012. 12. 8 (토) 9:20~14:00	워크숍 (제1세션 :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3국 협력 발전 방안/ 제2세션 : 제반 분야 3국 협력 발전 방안)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호텔

## NEAR홈페이지 재구축

NEAR사무국은 기존 홈페이지의 노후화 및 기능부족으로 2006년 5월부터 사용해 온 현행 NEAR홈페이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화상회의 시스템과 웹메일시스템 등이 보강되고 웹접근성이 강화되는 등 회원자치단체간 소통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와의 연계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재구축 사업은 2013년 1월 중순 완료될 예정이다.

- 홈페이지 주소 : [www.neargov.org](http://www.neargov.org)
- facebook계정 : [www.facebook.com/neargov](http://www.facebook.com/neargov)

## 회원자치단체 동정

### 후난성 - 중국

#### 2012 중국 후난국제관광페스티벌 개최

2012년 중국 후난 Hunan 국제관광페스티벌이 지난 9월 12일 후난성 천저우(郴州)시에서 성대한 막을 열었다. 처음으로 “물”을 테마로 한 후난국제관광페스티벌은 동창호(東江湖)를 무대로 하였으며, “후난-세계 물의 대화(對話)”를 통해 후난지역 관광의 낭만과 시적 정취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9월 12~22일까지 천저우 민속 문화를 주제로 한 합동공연, 제3회 중국 광석(鑛石) 전시회, 중국전통의화학포럼, 2012 세계관광아가씨선발대회 후난지역 최종선발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되었다.



후난성 천저우시 등장후

### 닝샤후이족자치구 - 중국

#### 닝샤 “내륙개방형경제시험구” 건설 및 “중국-아랍 엑스포” 기자회견 개최

중국 국무원은 올해 9월 닝샤 지역의 “내륙개방형 경제 시험구” 및 “인환 종합보세(保税)구” 설치를 비준했다. 이로써 닝샤는 중국 최초의 “내륙개방형 경제시험구”가 되었다.

국내외 언론을 비롯한 사회 각계에 관련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 닝샤후이족자치구 인민정부는 2012년 12월 7일 베이징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닝샤의 “내륙개방형 경제시험구” 및 “중국-아랍 엑스포”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 세관본국 및 닝샤후이족자치구 인민정부의 주요 간부가 참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으며 그 밖에 60여 개 국가의 주(駐)중국 외교사절 역시 기자회견장에 참석하였다.

### 산둥성 - 중국

#### ‘산둥-경기 대학교류협의회’ 공동 발족

10월 25일, ‘산둥-경기 대학교류협의회’ 창립식이 산둥성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산둥성 27곳, 경기도 12곳 고등교육기관의 책임자 1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산둥성 사경(夏耕) 부성장 및 경기도 최승대 부지사가 참석하여 <산둥-경기 대학교류협의회 협약서>에 조인했다.

‘산둥-경기 대학교류협의회’는 산둥성 사경(夏耕) 부성장과 경기도 최승대 부지사가 협의회 공동회장을 각각 담당하고, 산둥성과 경기도 내의 대학이 회원으로 구성된다. 산둥성은 처음으로 한국지방정부와 교육분야의 종합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양 지역 고등교육기관의 우수자원을 발휘하여 산·학·관·연의 연계 촉진 및 학생들의 학습 및 생활 취업 등 다방면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산둥성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은 156곳으로 한국유학생이 6,000명에 달하고 있다.



‘산둥-경기 대학교류협의회’ 창립식

### 야마가타현 - 일본

#### “한일축제한마당 2012 in Seoul”에 참가

야마가타현은 지난 10월 3일,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12 in Seoul’에 동북·북관동지역 관광캐러밴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관광홍보물의 배부 및 야마가타현산 청주의 시음행사를 가졌다. 특히 청주 시음행사는 ‘향이 좋다’ 등 높은 평가를 얻었다.

또한, 다음 날에는 롯데호텔에서 일본여행상품을 취급하는 여행사 등과 상담회 및 교류회를 개최하여 야마가타현내의 골프장 및 체험시설, 온천 등을 소개하였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동북지방을 방문하는 한국관광

객이 급감하여 지금도 이전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 등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동북지방을 방문할 것으로 아마가타현은 기대하고 있다.



행사 방문객에게 아마가타를 소개하는 모습

## 후쿠이현 - 일본

### 후쿠이 먹거리 주간(週間 : Week)

후쿠이현은 올해 11월 2째 주 일요일부터 3째 주 일요일까지 8일간을 '후쿠이 먹거리 주간'으로 정하고, 초·중등학교 등지에서 미각수업(시식수업)과 후쿠이가 만든 건강메뉴 '후쿠이 건행미식(健幸美食:)'의 제공, 후쿠이의 먹거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후쿠이 맞춤제' 등 먹거리를 배우고, 맛보고, 즐기는 활동을 전국의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후쿠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미식가들로부터도 맛있는 먹거리의 보고로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쌀 브랜드 '코시히카리'의 고향으로도 유명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대게, 토란, 메밀 등 후쿠이를 대표하는 가을 먹거리들로 풍년을 이룬다. 후쿠이현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후쿠이 먹거리의 매력을 재발견하고, 먹거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맛있는 후쿠이의 먹거리를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 연락처: 후쿠이현 농림수산진흥과TEL0776-20-0421



'후쿠이 먹거리 주간'

## 우부르항가이 - 몽골

### 제2회 고전연극축제 개최

고전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년에 한 번 개최되는 고전연극축제가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몽골 중부지역인 우부르항가이아이막에서 개최되었다. 두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고전연극축제에는 몽골의 중부지역에 속하는 오르홍아이막, 다르항오올아이막, 불강아이막, 아르항가이아이막, 투브아이막, 후웁스굴아이막, 우부르항가이아이막이 참가하였으며 세익스피어의 '로미와 줄리엣', '폭풍우', '리어왕', 헨리크 입센의 '인형의 집', 오닐의 '느릅나무 그늘 밑의 욕망' 등의 작품을 선보였다.

## 우부르항가이아이막 - 몽골

### 제1회 빙벽등반 대회 개최

몽골 산악인 가이드협회는 (주) "MCS Coca-Cola" 후원으로 제1회 빙벽등반 대회를 개최하였다. 익스트림 스포츠인 빙벽등반은 고산등반과 강폭포등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등반지는 우부르항가이아이막의 오르홍강에 있는 높이 24미터, 경사도 85~90°의 '올랑초트갈랑' 폭포이다. 몽골은 겨울이 길고 춥기 때문에 빙벽등반이 겨울스포츠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몽골의 등반가이드협회에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 마가단주 - 러시아

### 제6회 마가단 국제얼음조각상 경연대회

제6회 마가단 국제얼음조각상 경연대회인 <마가단 크리스탈>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러시아 마가단시 승리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마가단시는 <2010년~2014년 지방자치교육 문화발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얼음조각상 예술품의 완성도 및 홍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 행사를 개최하였다. 마가단시를 비롯해 러시아 동북지역 도시, 국제 친선교류도시에서 도시를 대표해 참가할 수 있다. 본 경연은 자유주제로 2부류: <청소년 조각가> (18세 이하 참가자)와 <전문가> (18세 이상 참가자)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경연대회 결과는 대회조직위원 대표자와 전문 조각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마가단시 크리스마스 트리 개막식 때 발표되었다.



제5회 <마가단 크리스탈> 경연대회 1등 수상작 리투아니아 작가 작품 : <하프연주자>

## 경상북도 - 한국

### 몽골, 경북도, 교류협력사업 확대 “몽골 올란바타르시 공무원 연수단” 경상북도청 방문

몽골 올란바타르시 토지국 도시개발분야 공무원 연수단 13명이 KOICA 초청 연수기간 중 11월 23일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건축 지적 등 최첨단 시스템 운용방법을 체험하고 새마을 운동의 성공사례를 견학하는 등 경북도

의 선진 도시개발 기술을 벤치마킹 했다. 경북도 이재춘 건설 도시방재국장은 몽골 토지국 공무원들의 지난 7월 도 초청연수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방 정부간 상호교류를 확대 추진하게 되면 지역 기업의 자본과 기술력, 고급인력 등을 수출하는 몽골진출이 활성화 되어 경북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몽골 올란바타르 토지국 공무원 연수단 13명의 경상북도 방문

## 경상북도 - 한국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비 본궤도 이스탄불 현지서 공동사무국 설치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준비가 본 궤도에 올라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는 11월 22일 터키에서 열린 “한국 기업 통합 투자 촉진 회의”에서 “이스탄불-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설명회 및 후원행사”를 개최하고 내년 1월에는 현지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준비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22일 까지 23일 동안 길, 만남 그리고 동행을 주제로 이스탄불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서 50여 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 경상북도 - 한국

### 박승호 포항시장, 청와대에서 감사나눔운동 소개

박승호 포항시장은 11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공동대표 안양옥 한국교총연합회장, 손병두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과의 간담회에서 감사나눔 운동을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포항시 관계자는 “인실련에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검증과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어, 향후 인증프로그램으로 결정된다면 내년부터는 전국 학교에 보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대전광역시 - 한국

### 대전광역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대전컨벤션센터와 무역전시관 일원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16개 시·도와 시·도 교육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학습도시 등 150여개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박람회는 초등학교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가운데 평생학습의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시책들을 보여줘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차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 강원도 - 한국

### 강원도, 중국 최대 관광시장 상해 공략

강원도는 중국 최대관광시장으로 내년 1월부터 양양공항 전세기 운항 예정지역인 상해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특별 홍보마케팅에 나섰다.

강원도는 이번 상해 홍보마케팅이 양양~상해 간 운항예정 노선 활성화와 타 도시 노선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상해지역을 포함한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러시아 알타이 변경주

건강과 여행, 휴식과 스포츠!  
알타이 변경주에서



클리반스코에 호수



1. 청녹색 카툰 2. 쉬늑강 3. 아로보예 호수 4. 데니소프 동굴

**지리적 위치**

알타이 변경주는 남서 시베리아 지역으로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중국, 몽골과는 직접적으로 아주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알타이 변경주의 면적은 16만 8천km<sup>2</sup>로 오스트리아, 체코, 포르투갈 면적의 2배를 초과한다. 인구는 250만명이고, 행정중심지는 바르나울시이다.

**자연·기후 조건**

알타이 변경주는 초원, 삼림스텝, 산림, 산 등 매우 다양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연중 7월(21℃)이 가장 따뜻한 달이고, 1월(-18℃, -21℃)이 가장 추운 달이다.

**문화·역사 유산**

알타이 변경주는 고고학, 건축, 역사, 문화 유적지가 5천 개에 달할 정도로 시베리아에서 역사, 문화 유산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경제**

변경주의 주요 생산품은 증기보일러, 디젤발전기, 디젤엔진, 화물철도차량, 코크스이다. 또 대량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즈, 밀가루, 곡물, 마카로니 생산의 리더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알타이 변경주의 러시아 과학도시의 중심인 비스크시에는 바이오 제약 공급기지가 건설되었다. 이곳은 제약분야 외에도 혁신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돕는 레이저 기술, 나노기술, 고분자 및 복합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단지이다.

**최적의 관광코스**

알타이 변경주 여행은 도보로, 스키로, 헬리콥터나 글라이더로, 말을 타는 등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또 계곡에서 레프팅을 하거나, 가파른 산에서 스키로 내려오거나 산 고개를 자동차나 자전거로 넘을 수 있는 아주 활동적인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수 장비를 가지고 여러 동굴이 있는 신비한 지하세계로 내려가거나 반대로 산정상에서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타이가 지역에서 사냥도 할 수 있다. 알타이 스텝지역에 많은 수의 함수호와 담수호를 개발하여 건강 휴양지 해수욕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관광·요양 리조트 단지**

알타이 변경주는 러시아 지역 중에서 휴양과 치료를 위한 지역 중의 하나로 유명한 곳이다. 휴양 관광객들을 위해 180여 곳의 호텔과 44곳의 요양시설, 147개의 숙박과 휴양기관, 160개 이상의 <그린 하우스>가 있다.

**요양·리조트 단지**

이곳은 요양리조트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풍부하다. 치료용으로 미네랄 온천수, 호수진흙, 독특한 기후적 특성, 녹용 목욕, 약초 등을 사용한다. 한번에 8천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44곳의 요양 리조트 시설이 있다.

**3대 관광·휴양 클러스터 <벨로쿠리하>, <골든게이트>, <청녹색 카툰> <벨로쿠리하>**

2012~2016년에 진행되는 연방, 변경주 및 지방예산과 투자자를 유치하여 총 면적 7,700헥터, 약 4천여 개의 부대시설, 9개의 관광단지가 포함된 대규모 종합 클러스터이다.

**<골든게이트>**

알타이 변경주는 러시아 여행을 할 때 거쳐가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골든게이트> 단지의 서비스는 관광안내, 장소 예약, 여행상품안내, 식료품, 카센터, 호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4년쯤에 이 단지 프로젝트가 완공될 예정이다.

**<청녹색 카툰>**

2007년에 러시아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라 관광분야의 중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특별경제구역 관광휴양유형의 <청녹색 카툰>이 건설되었다. 이 곳은 카툰계곡이 흐르는 러시아 최초의 자연과 레저관광이 복합된 고유 관광단지이다. 앞으로 아쿠아파크, 스포츠센터, 패션센터, 레저스포츠 센터, 승마장, 청소년 캠프장, 인공 스키 점프대, 암벽등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길, 만남, 동행’ 이 어우러진  
 ‘문화의 실�크로드’ 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장  
 경상북도지사

김관홍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인류 문명의 역사는 길을 개척하고 길을 따라 오가며 길을 통해 교류해온 길 위의 역사입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와 그리스·로마·오스만 문화의 중심지 이스탄불은 실�크로드라 불린 머나먼 길을 따라 동서문화의 산물을 주고받으며 독특한 문화를 꽃피워 왔습니다. 이렇듯 실�크로드는 단순한 교통로 이상의 의미가 있는 교류와 소통의 길이자 꿈과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 길이 21세기 新문화실�크로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동·서양 문화 체험과 휴식이 있는 신개념의 차별화된 문화 콘텐츠를 즐기시며, 우리의 미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은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23일간 이스탄불 시내 일원에서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이란 주제로 열린다. 2006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엑스포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지에서 50여 개국이 참가해 전시·공연·영상·체험·특별이벤트 등 9개 분야에서 30여 개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양측은 내년 1월 공동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세부 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한국과 터키의 스포츠문화 교류의 장으로 ‘한국-터키 국가대표 축구경기’와 경주에서 이스탄불까지 자동차 100대가 실�크로드를 횡단하는 ‘코리아 웨이브 오토 카라반’,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 펼쳐지는 해양순항훈련 등 대규모 사전행사도 마련된다.

그리고 한국-터키 국립공연단 공연, 돌마바흐체 궁 특별음악회, 실�크로드에서 만나다展, 실�크로드 상인 퍼레이드, 선택여왕 퍼레이드, 천년고도 사진·그림전, 신라 보물전, 세계영화축제, 한-터 음식시연시식회, 한-터 전통 패션쇼, K-Pop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자고 양측은 협의하고 있다.

경주 엑스포는 신라유물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낸 ‘천년의 신라, 미래의 천년을 살다’ 전시와 최근 싱가포르에 수출해 국제적 흥행에 성공한 난버벌 공연 ‘플라잉’, 전통문화와 의식주로 한국인의 삶을 표현한 ‘한국문화관’ 등을 통해 경북을 비롯한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세계에 전파할 방침이다.

또 한류 붐 확산을 위해 한국영화제, 국악·K팝 공연, 비보이+퓨전공연, 태권도시범단 공연, 전통문화체험 등의 행사도 진행한다. 동양과 서양, 지

## 이스탄불-경주 '21세기 新실크로드' 놓는다

내년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동개최  
 '길, 만남 그리고 동행' 주제 23일간 30여 개 프로그램 마련  
 한-터 문화·경제교류 시발점 & 관광·산업분야 파급효과 기대  
 양국 정부차원 적극 지원 합의... 2013년 1월 공동사무국 오픈



구촌 문화 화합을 위해 그랜드 바자르, 세계민속공연축제, E-Battle 대회도 준비 중이다.

주요 행사 장소로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에 달하는 이스탄불 최대 변화가 '탁심광장', 비잔틴제국 최고의 건축물인 '성 소피아성당', 오스만 제국 황제들의 거처 '톱카프 궁전' 등이다.

경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스탄불-경주엑스포는 실크로드의 기·종착지였던 경주와 이스탄불을 다시 연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이으면서 연9%대 경제성장을 자랑하는 혈맹국 터키와 손잡는 행사"며 "역사적, 지정학적, 경제적, 외교적 관점에서 성과를 거두는 범정부적, 국제적, 미래지향적 행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로 다듬어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경북을 각인시키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지난 1998년 이후 2011년까지 여섯 차례 열렸고, 그동안 298개국에서 5만 6천여 명의 문화예술인이 참여해 누적관람객이 1,000만 명에 달하며(외국인 108만 명) 2006년에는 캄보디아와 공동으로 앙코르와트 일원에서 '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개최해 '대박'을 터트린 바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들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2003년 제작한 3D입체영화 '천마의 꿈'은 캐나다로, 지난해 만든 년번벌 퍼포먼스 '플라잉(FLYing)'은 올해 말 싱가포르 진출이 확정됐다. 이에 경주문화엑스포는 '한국 대표 국보급 축제', '한국의 글로벌 문화브랜드'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닌다.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에 NEAR 회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으로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 | 행사 개요 |

<b>명칭</b>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b>주제</b>	길, 만남 그리고 동행
<b>슬로건</b>	실크로드로 만나는 한국과 터키
<b>기간</b>	2013. 8. 31(토) ~ 9. 22(일) (23일간)
<b>장소</b>	터키 이스탄불 시가지 일원
<b>내용</b>	사전·공식행사, 공연, 영상, 전시, 체험, 이벤트, 심포지엄 등
<b>참가 주최</b>	50개 국 1만여 명의 문화예술인 참여 대한민국 경상북도·경주시, 터키 이스탄불시
<b>주관 후원</b>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조직위원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터키 문화관광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위원회 외 18개 기관

### | 연락처 |

<b>주소</b>	경상북도 경주시 경감로 614 경주세계문화엑스포
<b>전화</b>	054-748-3011
<b>팩스</b>	054-748-3012
<b>홈페이지</b>	www.cultureexpo.or.kr
<b>트위터</b>	@cultureexpo
<b>페이스북</b>	cultureex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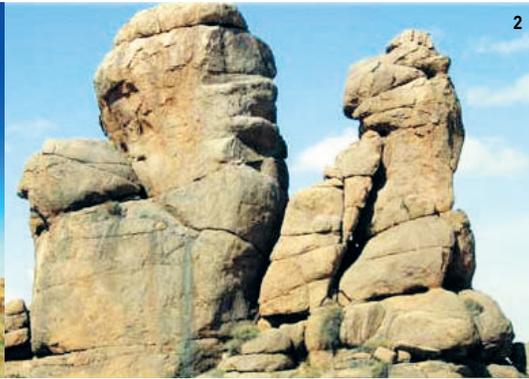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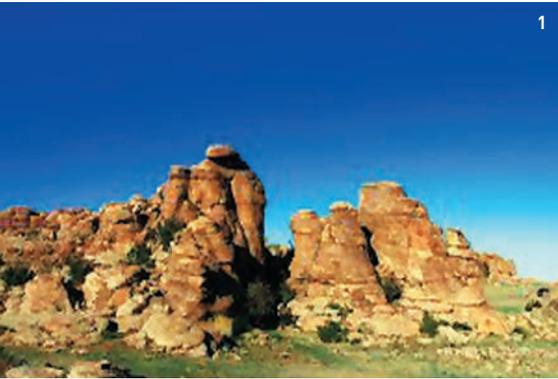
몽골 돈드고비아이막

# 돈드고비아이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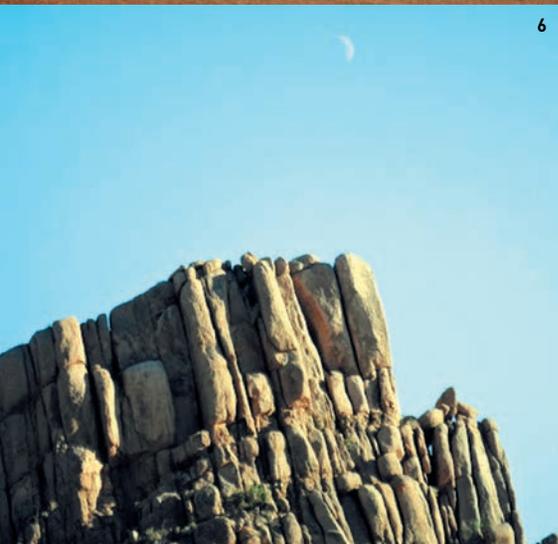
• 설립연도	1942년
• 중심도시	만달고비
• 위치	몽골 중심부
• 면적	74,690km <sup>2</sup>
• 행정구역	1개 도시, 15개 슝
• 인구	46,300명(2010년 현황)



해저 퇴적층 - 차강 소바르가 (Tsagaan Suvarga) : 돈드고비아이막의 울지트스움(Ulzit soum) 지역에 위치한 차강소바르가는 바람과 물의 작용으로 무너진 해저 퇴적층의 현상으로 멀리에서 보기에 탑처럼 보인다고 하는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차강 소바르가 하안탑이란 뜻으로 불린다.



1,2. 바그 가즈링 출로 화강암산(Baga gazriin chuluu) 3. 낙타폴로  
 4. 사막의 야외 공연장 : 이흐 가즈링 출로 화강암산 가운데 지름 20m의 야외 무대는 실내용향 상태와 같은 효과를 가진 최대의 음향 상태를 자랑한다고 한다.  
 5,6.이흐 가즈링 출로(Ikh chyluu)



**개요**

돈드고비아이막은 몽골의 수도 울랑바타르에서 260km 지점에 위치한다. 예부터 돈드고비아이막은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졌다. 특히 몽골 민요의 한 장르인 ‘오르딩 도’의 기량이 좋은 가수들이 돈드고비아이막에서 많이 발굴되었다. 한편 ‘오르팅 도’는 음역은 보통 3옥타브까지 발성되는 특징이 있으며 2005년 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재에 등재된 바가 있다. 또한 돈드고비아이막은 마유주와 양고기 맛과 질로 국내적으로 유명하다. 돈드고비아이막은 울랑바타르에서 비교적 가까운 편이어서 몽골의 사막지역보다 관광하기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바람의 흔적-기암괴석**

돈드고비아이막은 몽골의 남과 북쪽 기류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지역이다. 그래서 돈드고비아이막은 바람에 의해 생긴 웅장한 기암괴석과 진기하고 이국적인 풍경의 자연의 조각품 천국이다. 또한 몽골의 화강암지대의 대부분은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남북방향 20km 이어진 화강암산이다. 고산은 해발 1,706m 되며 여러 가지 모양의 40여 개의 동굴과 만물의 모습을 닮은 바위들이 있다. 동굴들은 길은 험하지 않고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함으로 도보 여행하기에 힘들지 않은 코스이다.

**지역 스포츠 · 낙타폴로**

몽골의 고비지역은 쌍봉 낙타의 고향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낙타가 없는 고비나 고비가 없는 낙타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해마다 줄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낙타관광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낙타 사육 장려 및 관광객 유치에 위해 매년 낙타폴로 대회를 읊느고비, 도르노고비 등 고비 지역 아이막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돈드고비아이막은 2006년에 제1회 낙타폴로 대회를 가진 후 뒤이어 고비지대, 전국범위에서 선수권 대회를 가졌다. 현재 낙타폴로는 9개의 몽골 전통 스포츠 종목에 들어간 만큼 고비 사람들의 인기 스포츠 종목이 되었다.

**지역 브랜드**

돈드고비의 주요 산업은 목축업이며 아이막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목축업 생산품 중에 마유주, 낙타털 발효식품은 맛과 질이 뛰어나서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마유주는 단백질과 불포화산을 포함한 지방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으며 특히 마유주와 양고기 맛이 좋은 것은 사막 지역에만 나는 독특한 야생물의 성분 때문이라고 한다.

**국제교류**

돈드고비아이막은 러시아연방의 부랴트공화국의 카흐타시와 교육, 보건, 문화분야에서 교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고양시와 장성군과 사막화 방지 사업과 물공급향상 사업추진에 협력하고 있다.

#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The Association of North East Asia Regional Governments

(790-834)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지곡동 601) 포항테크노파크 3층

T. 054-223-2311~20 F. +82-54-223-2309 E-mail [neargov@hotmail.co.kr](mailto:neargov@hotmail.co.kr) Website [www.neargov.org](http://www.neargov.org)